

# ‘가벼운 발걸음’으로서의 남북한 대중문화교류

## Online Series

2018. 05. 04. | CO 18-17

김 수 경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남북한 대중문화 교류는 정치적 중립성과 상징성에 매몰되어 정작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통일의 주역이 될 ‘밀레니얼 세대’는 이성보다 감성, 글자보다 이미지로 소통하는 세대인 만큼,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붙들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의 대중문화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의 중압감에서 다소 벗어나, 서로를 흥미로운 문화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한반도의 봄은 노랫소리와 함께 찾아왔다. 2월 북한예술단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펼친데 이어 4월에는 남한예술단이 평양을 방문해 공연을 펼쳤다. 남북한 가수가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장면에서 남과 북의 주민들은 그동안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다시금 마련되었다.

### 밀레니얼 세대와 남북한 대중문화 교류

문화는 정치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남북한 해빙무드의 첫 계기가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과 함께 시작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2008~2017년)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는 단 8건에 불과했다.<sup>1)</sup> 이 기간 동안 남북간의 문화적 차이는 더욱 커졌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접점은 더욱 좁아졌다. 북한과 문화교류를 함에 있어 공통분모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문화라는 것은 상징이자 유흥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같은 노래들이 남북한 화합에 대한 열망을 상징할 수는 있지만,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일회적 행사로 소비되고 끝날 수밖에 없다. 결국 문화교류의 지속은 남북한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얼마나 담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문화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영역은 스포츠, 학술, 예술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교류의 과정과 성과에 가장 많은 이가 동참할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대중문화다. 올해 초 남한 예술단의 방북 공연이 결정되었을 때 남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단연 화제가 되었던 것은 ‘남한의 걸그룹 중 누가 북한에 가느냐’의 문제였다. 종전이나 비핵화와 같은 거대 담론을 논의하는 중차대한 시국에 어느 연예인이 북한에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젊은이들의 빈곤한 역사인식을 타하는 기성세대의 훈계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늘 정치적 시각에서 무거운 주제로 다뤄졌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무관심을 자초한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통일이라는 대격변을 주도하게 될 세대는 다름 아닌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이들의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 소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20~30대는 이성보다는 감성, 글보다는 이미지로 소통하는 세대다. 더구나 저성장의 그늘에서 청춘을 지나온 이 세대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 냉정한 현실인식을 특징으로 한다.<sup>2)</sup> 이들에겐 통일의 거대한 비전을 설교하는 것보다 통일이라는 주제를 흥미롭고 친숙한 주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남북한 대중문화 교류의 어려움

남북한 대중문화 교류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남북의 대중문화 가운데 서로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오로지 대중을 정치적으로

1)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동향』, 2017년 7월.

2) ‘밀레니얼 세대’는 닐 하우(Neil Howe), 윌리엄 스트라우스(William Strauss)가 1991년 출간한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로, 1980~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역사상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이지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평균 소득이 낮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선동하고 교육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남한 대중의 보편적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상 많지 않다. 지난 2월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 당시에도 선곡에 애를 먹은 까닭은, 체제선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북측 노래를 선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총 46곡 가운데 북한 노래는 9곡이 선곡되었는데, ‘모란봉’은 “혁명”이나 “사회주의 건설” 등의 가사가 문제되어 선곡에서 제외됐고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은 김일성을 상징하는 일부 가사를 개사해서 불러야 했다.

또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자본주의 날라리풍’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 교류에 제약이 있다. 북한은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의 외부문화를 반입,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최고 5년 교화형에서 10년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것을 경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이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사실상 남한의 대중문화를 우회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그 결과 남북한 대중문화 교류는 남북 화해의 극적인 계기가 마련된 순간에만 이벤트성으로 소비되며, 그 내용도 대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정치적 중립성, 상징성에 초점을 둔 레퍼토리로 채워졌다. 민요나 가곡, 전통가요가 중심이 되다보니 대중의 관심을 오래도록 붙들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남한의 걸그룹 ‘레드벨벳’이 평양의 대중들 앞에서 대표곡 ‘빨간 맛’을 부를 것인가를 두고 젊은 세대가 유희에 가까운 댓글 놀이를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쟁의 참상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중장년층의 눈에는 안이하고 한심해 보이겠지만, 남북관계는 이제 전쟁과 반공을 모르는 세대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 남북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문화 교류 방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해보면 의외로 북한주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남한의 드라마나 노래를 암암리에 보고 듣는 것은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 때문이 아니라 딱히 즐길만한 북한의 문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문화교류의 물꼬가 트인 만큼 북한이 자생적으로 대중문화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이 그간 외부문화의 유입을 극도로 경계했던 점, 대중문화를 체제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점을 고려하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대중문화에 지극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북한 사회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일 수 있다. 북한이 자체적으로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면 남한 주민들도 이를 즐기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합작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남북한이 동시에 이를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대라는 것은 동일한 경험을 동시대에 공유할 때 비로소 형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은 단지 역사와 언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남북이 동일한 것을 보고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남북한의 문화는 내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격차가 상당하다. 남한의 대중문화는 북한 주민들에겐 지나치게 탈근대적이고, 북한의 대중문화는 남한 주민들에겐 지나치게 전근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문화를 기계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큰 반향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차라리 남북한이 상호 관심을 붙들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문화 콘텐츠를 함께 만들고 이를 동시에 공유하는 편이 낫다.

## '가벼운 발걸음'으로서의 남북한 대중문화교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이른바 '작은 발걸음' 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서독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남한과 북한도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의 중압감에서 다소 벗어나 서로를 흥미로운 문화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조금씩 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을 떼어야 할 때이다. 북한에 대한 연성 기사와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기성세대의 시각은 변화할 필요가 있다. 거창한 내일보다 소소한 오늘이 더 중요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통일은 정치가 아닌 문화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